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1동 217호 국어교육과
전화 : (02) 880-7657~8 / 전송 : (02) 883-7630 / 누리집 : <http://cafe.daum.net/snukoredualumni/> / 전자우편 : ed705@snu.ac.kr / 동문회 계좌: 카카오뱅크 3333-043-108244 [예금주: 나상수(동문회 간사)]

<동문회비는 모교 국어과 사랑의 시작입니다. 동문회비·찬조금은 내외국인 학생의 장학 지원에 우선 쓰입니다>

임인년(壬寅年)의 덕담(德談)

박갑수(朴甲洙, '54,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임인(壬寅)년 새해를 밝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금년은 호랑이해라고 합니다. 우리 동문들은 우리말을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덕담을 하기 전에 “호랑이”에 대한 말부터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말에는 호랑이를 가리키는 말이 둘 있습니다. “호랑이”와 “범”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호랑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는 “범”이라고 하였습니다. 적어도 15세기까지는 “호랑이” 아닌 “범”이라 하였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범爲虎”를 비롯하여, 두시언해의 “모던 버몬 누어 드높게 잇고(猛虎臥在岸)”와, 석보상절의 “獅子와 범과 일히와”가 그 예입니다. 이밖에 17세기 자료에는 “범”의 용례가 무수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호랑이”의 용례는 15세기에는 물론, 17세기 자료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18세기 영조 때의 시조집인 ‘청구영언’에 “호랑이 탄 오랑캐”가 보일 뿐입니다. 이로 보아 우리말에는 본래 “범”이란 말만이 쓰였고, 뒤에 “호랑이”란 말이 새로 생겨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호랑이”라는 말은 “범 호(虎) - 이리 랑(狼)”자를 쓰는 한자어입니다. 그런데 이는 한자문화권에서 “범”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호랑이와 이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말에 우리는 접미사 “-이”를 붙여 “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랑이”라는 말은 의미장(semantic field)으로 보아 그리 바람직한 말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德談을 하기로 합니다. 호랑이는 백수의 왕(百獸之王)이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동문들은 무엇보다 다른 동문들과는 달리, 새해에는 모든 면에서 백수의 왕처럼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명예와 부(富)에서 모두 제일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종룡 풍종호(雲從龍 風從虎)”라고 용과 호랑이는 조화가 무궁한 동물입니다. 우리는 요새 코로나19란 이상한 증후군으로 말미암아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과 호랑이의 조화를 부려 우리 동문 모두가 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맹수는 먹이를 잡으려 할 때 귀를 늘어뜨리고 부복(俯伏)을 하여 살금살금 접근합니다. 잡을 대상자를 안심시키고, 숨어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는 ‘육도삼략’(六韜三略)이란 병서(兵書)에 나오는 “맹수장박(猛獸將搏) 미이부복(弭耳俯伏)”이라는 전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일인자라고 해서 뽐내지만 마시고 인생 과정에서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서 세상을 살아감으로 사랑을 받으며 많은 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넷째, 호랑이는 산신령(山神靈)이라고도 합니다. 사납고 용맹스럽지만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구해 주는 신령스런 동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효자를 돕고, 구해 주는 등,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등에서 호랑이의 많은 놀라운 기사(奇事)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호랑이의 산신령으로서의 미담(美談)의 주인공도 아울러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식한 문자로는 “호사유피(虎死留皮) 인사유명(人死留名)”이라 하지요. 이에 따라 꼭 이름을 남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이름을 남기면 더 좋지요. 동물인 호랑이도 가죽을 남기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고 해서 빈손으로 가셔야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셔서 올해도 “누가 무얼 했다면서 . . .”라고 말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문들은 아무쪼록 새해에 많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망년(忘年)”이라고 잊는 한해가 아니라 오는 새해에도 기억에 남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희망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동문 여러분 2022년 壬寅年 호랑이해를 맞아 호랑이의 기상으로 코로나를 물리치고, 가내 두루 건강하시며, 호시우보(虎視牛步)라는 말처럼 호랑이의 눈으로 멀리 큰 꿈을 꾸시고, 소처럼 신중하게 실천하여 풍성한 결실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동문회 임원단은 동문회원 친목과 후배들의 장학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022. 1월 元旦, 국어과 동문회장 이삼형 외 임원 일동 올림

신년하례회 일정 변경

매년 1월 둘째 주 토요일 11시 호암교회회관으로 변경

2023년은 1월 14일(토) 11시

▲ 박갑수 명예교수, <우리말의 어원과 그 문화> 우리말의 어원사전>(역락, 2021) 미수(米壽) 기념 발간



모교 박갑수 명예교수는 미수(米壽)를 맞아 우리말의 어원과 문화를 밝힌 600여쪽의 대저를 발간하였다. 종래 해명하지 못했던 많은 어휘의 어원을 밝히고 있다. 학문적으로 귀한 저작일 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는 낱말에 대한 많은 지식을 제공해 줄 것이다. 어원과 명명(命名)의 배경에 대한 해설은 일상 대화에 좋은 화제 또한 제공할 것이다.

[24대 동문회장 취임사]

따뜻한 국어과 동문회를 꿈꾸며
이삼형(李三炯, '74,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국어과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 동문회장 소임을 맡은 31회 이삼형입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에서 재직하다 2020년 2월에 퇴임하고 바쁜 듯 한가한 듯 시간을 보내다 동문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세대에 따라, 어느 영역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다르겠지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과가 학교에 다닐 때는 좋은 줄 몰랐는데, 졸업을 하고 지내다 보면 참 좋은 과라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학교에 다닐 때 잘 몰랐던 것은 아직 세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교육 분야가 화려하거나 두드러지지 않은 분야라서 젊은이의 열정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면에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에 첫 발령을 받았을 때, 생들과 선배가 저를 꾸짖듯이 학교에는 왜 왔느냐고 하면서 빨리 떠날 궁리를 하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경제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시기여서 기업들은 크게 성장하여 화려한 데에 비해 학교는 정체되고 무기력한 상태였기에 선배님의 말씀은 후배에 대한 진심 어린 충고였을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동기들이 교육계는 물론이고 언론계, 금융계 등 여러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앞서 길을 개척해 나가신 선배님들과 든든하게 뒤에서 올라오는 후배님들이 있고, 더욱이 우리 과의 선후배 사이가 서로 위하고 아껴주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과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 과가 참 좋은 과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퇴임하던 해에 시작한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등 글로벌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간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와 부채 문제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서 앞으로 큰 파고를 감내해야 할 가능성이 많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누군가가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이 공짜이거나 값싸게 누릴 것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일출이나 일몰, 새소리와 물소리 같은 자연은 공짜이고, 등산, 바둑, 서예, 음악 감상 같은 취미 생활도 큰 돈 들이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나 우정과 같은 것이 공짜라는 것이 놀랍고 다행스럽습니다.

우리 동문회가, 제가 지금까지 느꼈듯이,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르는 어려운 시기에도 돈독한 우정과 따뜻한 관계가 충만한 모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모임은 자유롭게 가질 수 없어도 소식을 전하고 서로의 정을 잇는 가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동문 여러분, 2022년 경인년 새해에도 건승하시고 액내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3대 동문회장 이임사]

학과의 수직 및 수평문화의 전통 잇는 동문회
민현식(閔賢植, '73,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어느 나라든지 선대가 물려준 수직문화와 동시대인이 엮어내는 수평문화가 조화롭게 발전해야 견고해진다. 이 두 문화가 비교적 견고한 유대인의 민족교육에서 받는 교훈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철저한 '신앙전승의 수직문화'이다. 5,700여년 신앙의 전승으로 구약성경을 어려서부터 암송하고 창조주를 생각하며 자란다. 상상력의 원천인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 신(神)에 대한 신앙적 사고가 우주 상상의 날개를 펼쳐 창의적, 과학적 사고로 발전하였다. '하브루타'라는 성경과 탈무드에 대한 토론편육을 부모에게 받아 학교토론으로 이어져 노벨상을 휩쓰는 창의적 민족이 되었고, 수난의 이민사 속에서도 타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거주국의 주류가 되어 각종 문물을 창조해 영향을 끼치고 있다.

둘째, 치욕의 역사를 기억하고 용서하라는 역사교육으로 전승되는 '역사의식의 수직문화'이다. 3,500여년 전 출애굽 해방절인 '유월절' (逾越節)을 지금껏 지키고, 유대인 학살을 기억하되 독일을 용서한다. 잊지 말고 기억하되, 용서하라는 것이다.

셋째, 건전한 '가족 중심주의 수직문화'이다. 정통 유대교육을 받은 유대 여성은 일찍 결혼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소망한다고 한다. 데이트 신청을 받으면 부모에게 알려 허락을 받고 부모는 그 가문을 보고 교제를 허락해 결혼을 가문의 결합으로 간주하는 유대인의 결혼관은 우리의 유교적 전통 결혼관과 비슷하다. 유대인에게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보전하는 보배이기에 자녀 다산은 축복이라 믿고 실제 다산을 한다. 10명 자녀를 키우는 유대 어머니의 비결은 만이가 둘째를, 둘째가 셋째를 가르치는 식으로 가사분담을 하니 부모는 만이만 바르게 가르치면 되는 우리에 10남매 키운 어버이들 교육법과 동질적이다.

넷째, 철저한 '자주국방 안보의식의 수평문화'를 이룬다. 고교를 졸업한 후 18살이면 남성은 무조건 3년, 여성은 2년(특수병과는 3년) 복무하며 어떤 신체결함이 있어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군면제가 없다. 제대 후 예비군이 되어도 1년에 한 달 정도는 예전 근무부대에 동원되어 전우를 다시 만나니 우리의 향우회, 동문회보다 더 끈끈한 평생동지가 된다. 우리는 예비군이 되면 주소지 근처 부대로 동원되어 서로 낯설어하는 것과 다르다. 예비군의 전투력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방식이 옳다.

다섯째, 기부 문화로 약자를 돕는 '사랑의 수평문화'를 이룬다. 유대인은 모든 소유를 신이 주신 것이라는 신앙고백으로 십일조를 드린다. 어려서부터 저금통에 수시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 동전을 넣으며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저금통을 가져가 헌금하기를 습관화해 자라서도 재물이 생기면 기부를 많이 하는데 이는 공동체의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수평문화를 이룬다.

우리나라도 유대인 못잖은 수직문화와 수평문화의 전통이 있으므로 국어교육은 수직 및 수평문화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회복하는 학문으로서도 문화적 사명이 있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동문회도 사범대 및 학과의 전통 곧 청량원(淸涼苑) 동산과 관악(冠岳)에서 선후배간 이어져 형성된 수직문화 및 수평문화는 무엇일까 되새겨 보며 소중한 전통과 경험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국어과 동문회장을 맡아 지내다 보니 2년이 훌쩍 갔다. 국어과는 학부 동문 2400명, 석사 수료 770명, 박사 수료 400명에 달하는데, 연락처 파악이 학부 2018학번(75회 졸업)까지 1,400여명에 불과해 동문 찾기는 지속해야 하므로 동기별 모임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동문회의 1천만원 적자구조는 코리아나 호텔 신년하례회의 과다 비용이 원인이었는데, 방효정·이혜성·최방지 동문의 후원으로 해결되어 감사드린다. 4면 하단 계속

[同門回顧]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원영(韓元永, '49, 전 청주전문대 학장)



1. 입학시험

당시 사범대학의 위치는 乙支路 6가에 있었다. 근처에 메디컬센터가 있었고 藥學大學이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당시는 京城)로 수학여행을 와서 京城師範學校 강습과에 다닌 선배를 방문하러 와서 알았고 두 번째는 中學校 6학년 때 學徒護國團 간부 훈련을 서울師大에서 했기에 대학 위치를 알았다. 강당에서 입소식을 했는데 國務總理 李範奭 장군과 문교장관 安浩相 박사 앞에서 훈련생 대표로 선서를 내기 했다. 학교의 위치는 아는 곳이 이곳밖에 없기에 시험 삼아 친 시험이 합격을 해서 운명의 길이 이쪽으로 물리게 된 것이다. 아버지는 의사 쪽을, 어머니는 교사 쪽을 원하셨는데 어머니의 소원을 풀어드린 셈이다.

중학생 시절, 일본책 '趣味の法律(上田保 저)' 을 재미있게 읽은 일이 있다. '法' 은 물을 거 뺀한 것이어서 무미건조 맛이 없다 하는데 그럴지가 않다고 上田保는 말하였다. 이런 말에 혹했는지 나는 法科를 생각하고 있었다. 小説을 보아도 가난한 학생이 후꿈 끝에 고시합격하여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 부러웠던 모양이다.

數學은 반 학생 전부가 싫어했다. 한 사람 김 군만이 그런대로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는 水原農大에 합격했다. 數學 선생님은 崔雲九 선생님이셨는데 끝나는 종이 나도 한 문제만 더 풀자고 성의를 다해 가르쳐주셨다. 그때는 지긋지긋하게 미운 선생이었는데 지금 되어서는 참으로 고마운 분이시었다. 만년에는 서울 어느 사립고등학교 校監으로 와 계셨는데 작고하신 지 오래되었다. 大學入試에서 數學試驗을 의외로 잘 치른 것은 최 선생님 덕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나도 授業을 하다가 종이 나면 하던 말도 멈추고 백목을 내던지고 교단을 내려오는 그런 교사는 되지 않겠다고 그렇게 실행했다.

國語는 구술시험에서 李鐸(이탁) 선생님께서 현대문과 古文중 무엇을 전공하겠느냐 물으시기에 아무래도 현대문쪽이 답하기 쉬울 것 같아 現代文 전공으로 답했더니 獨立宣言書를 놓고 읽으라 하셨다. 獨立宣言書는 국어 선생님께서 숙제로 외워오라 하셔서 붓글씨로 크게 써서 책상 옆 벽에 붙여두고 암송했던 터라 자신있게 읽어 내려갔다. 單語 한 자 한 자 뜻을 물으셨다면 많이 막혔을 것이다.

그것을 물어보지 않으시고 막힘없이 읽어 내리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여기셨다. 國語는 公州高等學校에서 오신 李在栢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셨다. 冊이 없어 프린트를 해서 배웠다. 프린트 칠할 글씨는 전적으로 내가 썼다. '江湖에 병이 깊어 竹林에 누웠더니 어와 聖恩이야 가디록 망극하다' 關東別曲을 읽으시던 선생님의 코 먹은 소리가 지금도 선하게 들려오는 것 같다. 내가 昌德女高 校監을 할 때 보통고시 국어 출제를 했다. 어느 날 시험문제를 제출하고 오는데 東十字閣 근처에서 선생님을 뵈었다. 얼마나 반가운지 지금은 어디에 계시나고 여쭈어 보았더니 大田에 있는 普文高等學校長으로 계시다 한다. 내가 淸州에 있을 때 學校로 찾아가셨으나 출타 중이어서 명함만 놓고 돌아왔다. 1등 국어 선생님이셨다. 내가 國語를專攻한 것도 이 선생님의 영향이 큰 것 같다.

선택으로 自然科學은 生物을 선택했다. 전문적인 物理나 化學에 비하여 상식이 통할 것 같아서 生物을 택했다. '지렁이는 어느 때 볼 수 있느냐' 는 문제가 나왔다. 상식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였다. 비가 오면 여름날에 길바닥에서 흔히 볼 수 있어서 그리 답했다. 여기에도 함정이 있는 것을 몰랐다. 뒤에 안 일이나, 그들의 生殖 시에 그리 나온다는 것이다. 또 봉어는 그려놓고 각 부위의 이름을 쓰라는 것이었다. 지느러미, 아가미 등 상식으로 잘 답했으나 머릿에서 꼬리까지에 점선이 있는데 이것은 모르겠다. 못 먹는 호박 찢어나 본다고 적당히 써넣고 팔호를 하고 '이것은 충청도 사투리' 라 적어넣었다. 정답은 옆줄이라는 것이다.

生物學 박사 崔基哲 교수님이 학기 초 강의에 들어가서 입시문제 해설을 할 때면 이 내 괴담안 문제를 설명하고 수강생을 웃겼다 한다.

社會科의 역사 시험 문제에는 門戶開放政策(open door policy)이, 지리에는 三角洲(delta)가 출제되었다. 입학 후 李能植 선생님의 美國의 極東政策의 강의를 들었는데 정답은 그때 잘 설명해주셔서 잘 알았다. 선생님은 大邱의 갑부의 아들이라 했는데 講義시간에 美帝國主義 운운하셔서 기관의 감시를 받고 있다 하였는데 6.25 사변 후에는 범지를 못했다. 선생님의 강의는 명강의가 되어서 큰 강의실이 항상 만원이었다. 문교계방정책도 중국은 치안이 허술해서 도적이 들끓었는데 나라에 질서가 잡히고 치안이 잘 유지되는 바람에 모두 잠은 문을 열고 살아도 좋다는 정부 정책이라는 답안이 있었다고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우리가 입학할 때는 대체로 이러한 시험문제였다.

2. 大學講義

필수과목인 教育學은 李俊夏 선생님의 프린트冊 '民主主義와 教育' 으로 공부했다. 잔 듀이의 民主主義와 教育, 經驗과 教育을 귀담게 들었다. 이 선생님께서도 6.25 사변 후에는 나오지 않으셨다.

韓相甲 선생님은 四書五經 중 孟子를 교본으로 하여 가르쳐주셨다. 孟子가 仁義를 강조한 梁惠王篇 첫 귀가 생각이 난다. "孟子見梁惠王 王曰叟不遠千里而來亦將有以利吾國乎 孟子對曰 王何必曰利亦有仁義而已矣 王曰何以利吾國 大夫曰何以利吾家 士庶人曰何以利吾身 上下交征利而國危矣"

韓相甲 선생님께서도 仁義를 신봉하는 철저한 孟子人이시었다. 韓先生님은 해방 이듬해인 1946년에 부임하셨다가(1946. 10. 22.~1948. 3.1) 6.25 사변 후에 학교를 떠나셨다. 成均館大, 關東大 교수, 東字專門大 學長을 역임하셨다. 동우전문대학장으로 계실 때에는 學長會議가 있을 때 꼭 上京하셔서 별 수가 있었다. 회의장에 들어가면 미리 와 앉아계셨다.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시어 옆에 가서 앉아 회의를 끝냈다. 학장회의는 공식 행사인데도 학교 차를 타지 않고 꼭 버스를 타고 오셨다. 학교 주인이 제자인데도 그리하셨다. 이것도 孟子의 가르침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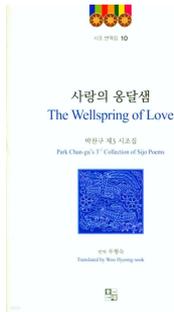
서울에 오셔서 이동 시에는 꼭 내가 모셨다. 학장을 그만두시고는 도봉구 수유동에 又峰書藝研究院을 설립하시고 후학들의 한문 한자를 가르치시었다. 年初가 되면 제자들이 세배를 갔다. 老弟子들이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렸다. 공부하러 왔던 老人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부러워했다. 점심식사를 하며 술도 한잔하신 후는 선생님께서 즉흥시 한 수를 지어 낭낭한 목소리로 읊으셨다. 매년 세배에는 具本嫻, 李應百, 趙健相, 康允浩, 禹寅燮, 任昌淳 선배, 그리고 李秉鎬, 朴鵬培, 韓元永이 참석했다. 이 일은 선생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매년 빠지지 않고 계속되었다.

<한원영('49) 동문 약력>

문교부 인문교육담당관, 청주전문대학장, 주성전문대학장 역임. 한 동문은 60이 넘어 박사논문 <한국개화기신문소설연구>(일지사)를 쓴 후, 일제 36년간 신문연재소설을 연구한 <한국근대신문소설연구>(이회문화사)를 쓰고, 75세 때는 1945년부터 95년까지의 신문연재소설을 연구한 <한국현대신문연재소설연구>(국학자료원)를 완성해 신문연재소설사연구에 15년을 바쳤다. 현재 대전에 거주하며 94세에도 3천쪽의 운서(韻書)를 편찬 중이다. 한 동문의 회고기는 선청어문 50집(2022년 2월 발간)에 수록할 예정이다.

先淸語文

시조 창작의 즐거움: 영역시조집 <사랑의 웅달샘> 출간에 부쳐 박찬구(朴燦久, '56, 국어교육과 15대 동문회장)



지난 8월 15일자로 제3시조집 「사랑의 웅달샘」을 영역집으로 발간하였습니다. 평론가 김봉군(60학번) 교수는 “소석(素石) 시인의 시조에서 자연 서정과 그 의미를 가장 압축적으로 제시한

대표작은 「향연」이다. 「향연」은 가락, 어조, 의미, 구성미의 네 요소가 절묘하게 해조(諧調)된 명시조이다. 여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대자연의 향연은 우주의 개벽으로 표상과 의미가 확장된다. 시상의 전개에 따라 시적 화자의 어조의 의미가 점층적으로 고조되는 흐름을 보여 준다. 고요, 수련담, 요동침으로 발전하는 점층적인 시학적 에너지의 표상미(表象美)는 가위 절륜(絶倫)의 경지를 가늠한다”라고 과분한 평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번 시조집의 특징은 문화의 세계화에 즈음하여 시조집 전체를 영역(英譯)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문을 써 주신 전 하버드 대학 교수이며 시인이신 데이빗 맥켄 교수와 번역을 담당해 주신 국제 PEN 한국본부 번역위원장이신 우형숙 교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89년 7월 「민족문화의 꽃인 시조를 전 국민이 갖고 음미함으로써 국민 정서를 순화시키고 민족정기를 선양케 한다」는 취지로 전통문화협의회(초대 회장 李應百 박사)가 창립되고 시조생활지(발행인 柳聖圭 박사)가 창간되면서 시조생활화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전개될 때, 전통문화협의회 부회장으로서 이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1995년 柳聖圭, 鄭梳永, 朴在森 위원들의 지도와 심사를 거쳐 <時調生活>誌 제23호를 통해 시조시인으로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시조생활사 대표이며 전민족시조생활화운동본부 초대 회장 유성규 박사의 뒤를 이어 1999년에 제2대 회장으로 9년간 봉사하였으며, 지금은 전통문화협의회 회장으로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0여 년을 살아오는 동안 그 중심에는 <時調의化身> 柴川 柳聖圭(국어과 55학번)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 세월은 柳 박사님의 헌신의 세월이었고 희생의 세월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그토록 진지하게 시조와 더불어 살고 시조 생활화에 온몸을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한편 2013년을 계기로 하여 세계무대로 외연을 넓히고자 <세계전통시인협회>를 결성하고 한국이 주관하여 2013년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8개국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제1차 한국총회>를 성공리에 개최했습니다. 나아가 본회의 존재를 세계만방에 과시했고, 세계 각국의 전통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당연히 유성규 박사께서 <세계전통시인협회> 초대 회장에 선출되시고 협회 본부를 한국에 두게 된 것입니다.

이어 2차 총회는 중국에서 2016년 6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중국문화의 발상지인 산둥성 곡부시 공자문화학원에서 세계 15개국 500여명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3차 영국대회는 2019년 6월 7일부터 8일까지 런던 빅 스트리트 파크호텔에서 8개국 30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알찬 잔치를 펼쳤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성규 회장께서 불참하게 되어 모든 회원들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본부 김봉군 이사장께서 회장 대행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며, 임선화 영국 회장의 주도면밀한 계획과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영국대회의 품격을 십이분 높여 주었습니다. 영국대회를 마치면서 각국 대표자 모임에서 총회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결의하고 차기 총회를 2021년에 몽골에서, 2023년은 네팔에서 개최기로 의결했습니다.

먼저 국어교육과(60학번) 출신으로 시조시인이며 문학평론가인 김봉군 가톨릭대 명예교수는 <세계전통시인협회 한국본부> 이사장을 맡아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역시 국어교육과(63학번) 출신으로 시조시인이며 가천대 명예교수인 이석규 교수는 본인과 함께 <세계전통시인협회 한국본부> 상임고문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특히 두 분은 <時調生活>지를 통해 등단한 시조시인들의 모임인 <시조생활동호회> 월례회에서 번갈아 가면서 강의를 맡아 회원들의 자질을 제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時調生活>지는 128호를 발간했으며 등단한 시조시인이 270여 명이나 되니 柴川 선생님께서 쌓으신 그 공로야말로 짐작이랍니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사대 국어과 동문들이 더 많이 시조에 관심을 가지고 등단하시어 우리 시조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구('56) 동문 약력>

경북 영양 출생. 1995년 <시조생활>로 등단.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전 서울시 교육청 장학관, 서울시 교육연구원장, 성동구 교육장, 교육부 정책실장, 서울시 교육위원, 전통문화협의회 회장, <시조생활> 편집 위원 등 역임. 先淸語文

=== [23대 민현식 동문회장 이임사(2쪽에서 계속)]

신년하례회를 호암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바꾸니 코로나 2년이 물려와 신년하례회도 줌(zoom) 영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내년에는 호암교회회관에서 만날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동문회는 '장학'과 '친목'의 두 축이 기본이므로 내가 내는 동문회비가 후배 장학에 쓰인다는 믿음을 드리고자 <선청어문 장학금>을 시작하였다. 동문들이 평생 한 번 릴레이 장학기부를 하는 <동문 특지 릴레이 장학금>도 신설하였는데 동문들의 특지가 도래해 감사하다.

장학금과 동문회의 기본경비를 충당하려면 동문회비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회비와 찬조로 후원한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회비 5년치를 내주신 동문, 익명으로 장학금 기부하신 동문이 계시기에 국어과의 미래는 밝다. 폐지를 모아 천만원을 기부한 노인, 저금통을 깨 동사무소에 기부한 어린이, 성과금을 기부한 공무원이 있는 우리 사회에 그래도 희망이 있듯이! 동문회장은 발이 넓고 친화력이 커야 하는데 부족함을 절감하였다. 이제 학문과 인격에서 존경받는 이삼형 교수께서 새 회장을 맡아 감사드리며 여러 동문들의 협조로 사랑이 넘치는 서울대, 사범대 최고의 동문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先淸語文

七十而志農

신현덕(申鉉德, '73, 전 한국산업기술대)



최근 어느 대학의 의뢰를 받아 언론인이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한국 언론의 현실'과 '언론인이 되는 길'로 몇 차례 특강을 했습니다. 마지막 질의 응답시간에 학생들의 질문이 소나기 편치를 퍼붓듯 쏟아졌습니다. 요즘 회자되는 '기레기'란 단어에 이르자 필자는 말을 더듬었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강의 준비하며 예상했던 질문이었으나 막상 질문을 받고 보니

약간 당혹스러웠습니다.

필자는 일간신문의 대기자를 잡고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는데, 마음속에는 아직도 기자의 자세가 남아 있나 봅니다. 그러기에 부끄럽고, 당혹스러워하겠지요. 실제로 교수보다 언론인으로 보낸 시간이 좀 더 깁니다.

강사의 약식 이력을 써낼 때, 최종학력 빈칸을 보면서 멈칫했습니다. 당연히 필자가 받은 학위의 최종 것이라 생각했습니다만 순간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담당 조교 선생이 내민 서류에 OO대학교 농학과 재학 중이라고 썼습니다. 옛된 얼굴의 조교 선생이 고개를 들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그가 “박사 학위...”라며 뒤통수를 긁었습니다.

“아니요. 맞아요. 3학년이에요.”

그가 “알겠습니다.”면서 활짝 웃었습니다.

순간이나마 그의 멋쩍은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교 선생은 지금껏 박사 학위를 슬하에 보았을 테니 그럴 만도 하지요. 우리 사회의 학위 인플레이션을 잠시나마 떠올렸습니다.

필자가 현재 학생이니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최종학력'이란 단어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말샘>은 “가장 마지막에 다닌 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학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지난 6년간 손바닥만 한 집 앞 텃밭에 상추, 고추, 무, 배추, 오이, 가지, 들깨, 케일, 쪽파 등을 알뜰하게 길러 작은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녁 밥상을 앞에 두고 입맛이 없으면 찢고추 서너 개를 따다가 고추장에 찍어 먹었습니다. 약이 오른 것은 매콤하고, 아직 약이 덜오 늘 것은 비릿했지만 '싱싱한 맛이 맛'이었습니다. 불현듯이 삼겹살 구이가 먹고 싶을 때도 텃밭으로 갔습니다. 상추는 어제 뜯었다라도 스무남은 잎은 항상 있었습니다. 두 식구가 앉아 막걸리 한 잔 걸칠 때는 지는 태양도 곱게 노을을 만들었습니다. 한여름 낮에는 오이를 따다 송송 썰어서 진간장을 풀어 오이냉국을 만들어 마시면 어느 화차보다도 시원했고요. 그때처럼 신나는 때도 없었지요.

텃밭에서 돌려짓기[윤작(輪作)]의 신비를 보았습니다. 배우고 나니 기막히게 훌륭한 농법입니다. 좁은 땅에 무슨 돌려짓기냐고 말할지 몰라도 좁을수록 필요합니다. 봄 상추를 심었던 땅에 가을 상추를 심으면 잘 자라지 않았습니다. 고추를 심었던 같은 장소에 내년엔 또 심으면 물러 터졌습니다. 계단 앞 화분에 코스모스를 심곤 했는데, 흙을 갈지 않고(이건 환토인데) 또 심으면 영락없이 실패했습니다. 거름을 주고 농약을 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생활원예' (최은영 외 7 공저) 경험이 전부였던 필자가 농사의 길로 나섰습니다. 학교에서 정년을 한 뒤, 이참에 농사를 지어보자고 시작했고, 하는 김에 농사를 정통으로 배워보라며 농학과에 편입했습니다. 한 학기 6과목 18학점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소한 단어와 개념도 많습니다. '경제적 피해 허용 수준'으로 잡초만 보면 기를 쓰고 뽑아내던 무의한이 여유를 찾았고, '병충해 종합관리'는 농약을 덜 사용하라는 것을 넘어 100% 유기농을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통계에 농민으로 잡힙니다. 2021년 100% 유기농 시험 경작에 성공했습니다. 호박, 박, 당근, 대파, 들깨를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 없이도 잘 지었습니다. (우측 하단에 계속)

동문회 소식

▲ 2021년도 동문회 가을 나들이, 경북궁과 고궁박물관에서



동문회 가을 나들이를 11월 20일(토) 11시 경북궁 및 고궁박물관에서 가졌다. 코로나 전염이 악화되어 원로동문들의 참여가 어렵고 관광 이동이 어려워 접근 용이한 시내 고궁과 통인동 세종마을을 답사하며 가을 정취를 느끼고 토속촌에서 오찬을 들고 내년을 기약하였다. 사진 왼쪽부터 박찬도(58), 정학섭(73), 민현식(73), 빈중호(83), 이옥희(83) 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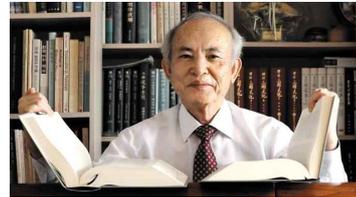
▲ 2022년도 신년하례식 및 정기총회



1월 15일(토)오전 11시 서초원 식당에서 줌 영상으로 신년하례회 겸 정기총회를 가졌다. 코로나 확산으로 호암회관에서 행사가 금지되어 (비)대면을 병행한것인데 1부 하례회에서 박갑수('54) 명예교수의 호랑이 해를 맞는 덕담과 학과장 구분관 교수의 덕담, 이은수('78) 교장의 은퇴소감, 신인동문 채지웅('16)회원입회소감이 있었고 기세관('71)동문의 영상 축가가 있었다. 2부 총회에서는 민현식('73) 동문에 이어 1년 임기의 24대 회장으로 이삼형('74, 한양대) 동문을 추대하였다. 이 회장은 기별 모임과 동호회 활성화를 기약하였고 3부에는 오찬의 시간을 가졌다.

▲ 광충구 동문('70), <두만강 유역의 조언어 방언사전>

롯데출판문화상 수상



광충구 동문(서강대 명예교수)이 평생의 연구로 2019년 태학사에서 발간한 전2권 4000여쪽의 방언사전이 태학사와 함께 제4회 롯데출판문화상을 수상하였다. 작년에 국어학자 학법 박승빈 기념상 수상에 이은 수상이다.

▲ 이승원('73) 동문, <작품으로 읽는 現代詩史> 발간



이승원 동문(서울여대 명예교수)이 2021년 신간 『작품으로 읽는 현대시사』를 발간하였다. 이 교수는 일제 강점기부터 1970년대까지의 대표적 작품을 망라하여 과거의 시를 현대의 감각으로 읽는 작업을 시도함으로써 현재의 독자들이 시의 변화 양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교수는 『백석의 만나다』, 『시정시의 힘과 아름다움』, 『정지용 시의 심층적 탐구』 등을 통해 한국 현대시를 깊이 고찰한 바 있다. 이 교수는 2020년에는 <具常評傳>으로 23회 한국가톨릭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정충권('82) 동문, <흥부전연구 2>, 2021 세종도서 학술도서 선정



정충권 동문(충북대)의 『흥부전 연구 2』가 문화부 주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의 세종도서 '문학' 분야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2003년에 출간된 『흥부전 연구』의 뒤를 잇는 『흥부전연구 2』에서는 <흥부전>을 통해 현대사회에서의 선악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 (옆 신현덕 동문 글에서 계속) 2022년에는 1,200평 밭

전체를 유기농법으로 경작할 겁니다. 유기농법에 합당한 유기질 비료 확보를 위해 유기 축산도 계획 중입니다만 정말 어렵습니다. 농학의 목표인 유기농 자급자족을 달성해 보겠습니다.

<신현덕('73) 동문 약력> 충북 보은 출생. 국어교육과 졸업 후 괴팅겐대 사회학과 수료, 한양대 행정학과와 몽골 국립아카데미에서 석사, 박사학위 취득. 국민일보 KBS 국제담당 대기자, OBS 경인방송 사장,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역임, 현 국민대학교 교수. 先淸語文

코로나 시국에도 배움은 계속된다: 4년차 사무관의 영국 석사 유학기 박가연(朴佳妍, '09, 문화재청)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주어지는 교육훈련 기회 중 국외훈련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처 자체에서 선발하는 훈련이고 다른 하나는 인사혁신처의 공동경쟁을 통한 훈련이다. 현재 몸 담고 있는 문화재청은 부처 규모가 작아서 부처 자체 영어권 국외훈련에는 단 한 명만 배정되어 있다. 이마저도 경력순으로 선발하기 때

문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무관이 선발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반면 인사혁신처의 공동경쟁의 경우 전 부처를 통틀어 어학성적순으로만 선발하기 때문에 좀 더 가능성은 있었다. 영어에 큰 자신감은 없어서 이 역시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실력 테스트 및 앞으로의 동기부여도 할 겸 도전해보게 되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합격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예상치 못하게 국외 유학을 떠나게 되었기에 어느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확실히 정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일단 케임브리지, 런던대 등 유명한 대학교 다섯 군데 정도 지원했는데, 지원 학과가 전부 달랐다. 때문에 추천서도 각 학과마다 그 내용이 달라져야 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 정말 감사하게도 학부 지도교수님이셨던 민현식 교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이해해주시며 지원하는 각각의 과정에 맞게 정성으로 추천서를 써주셨고, 덕분에 여유롭게 합격하여 행복한 선택의 기회까지 얻었다. 특히 케임브리지 고고학과 런던 정경대의 행정학을 두고 마지막까지 고민하였는데, 결국 런던정경대로 결정했다. 사회과학만 다루는 특수한 대학이지만 해당 분야에서는 많은 공공부문 리더와 성과를 배출했고, 행정가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사회현상을 이해하려면 복합적인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앞으로의 경력에 도움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영국의 석사는 보통 1년 과정으로 3개 학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경대의 행정학 전문 석사과정의 경우 경영학의 MBA와 비슷하게 MPA라 하여 특수하게 2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온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관계자, 다국적기업 종사자, NGO 등 다양한 경력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새로운 학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얻어지는 경험들,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가 이 학교에서 해당 석사과정을 졸업하면서 얻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 다른 한 가지의 강점은 원래 경제학에 특화된 학교 특성상 사회과학 모든 분야에서 양적 분석방법을 많이 가르친다는 것이다. 대학 졸업 후 수학이나 통계에 거리를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처음 진입장벽은 높았지만, 한 번 배워두면 추후 정책을 기안하거나 그 효과를 분석하는데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2019년 8월 런던에 정착해 첫학기 삶에도 공부에도 거의 적응해갈 즈음 새해로 넘어간 직후 곧장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 2020년 3월부터 영국 전역이 락다운(봉쇄)되어 학교는 갑자기 문을 닫았고, 모든 강의는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다. 외국인들은 런던을 엑스더스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때 많은 학우가 고국으로 돌아갔다. 결국 도움받을 곳도 없이 고립무원

으로 코로나가 창궐하는 런던 한복판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했다. 거의 하루종일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지만, 원체 수업의 강도가 높고 과제가 많았기 때문에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다. 2년차 가을학기엔 학교는 다시 문을 열었지만 여전히 대형 강의는 온라인으로, 소규모 세미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에서는 인터넷 연결문제와 더불어 의사소통이 특히 비언어적인 부분에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다. 소규모 세미나를 위해 학교를 다시 나가면서, 눈빛과 열정을 공유하면서 서로 질문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즐거운 것이었는가를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 봄학기만큼은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시 대형 강의를 학교 현장에서 다 같이 듣는 날이 오기를 기도했지만 오히려 코로나 상황은 더 악화되어 영국 전역이 다시 락다운에 돌입했고, 모든 강의는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다. 또 다시 인고의 몇 개월이 흘렀다. 마지막 학기에는 시험도 있고, 컨설팅 프로젝트와 졸업 과제였던 정책 논문까지 써야 했기 때문에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다. 현장 수업이었다면 정말 빠듯했을 일정이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점차 락다운은 해제되었고 학교에서 주최하는 졸업행사도 열려 온 좋게도 귀국 직전에 교수님과 학우들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볼 수 있었다. 거의 모든 학업기간을 락다운 속에서 보내야 했고, 방학 때도 마음 편히 여행하거나 쉬지 못했지만 모두 하나같이 힘들게 이 시기를 견뎌야 했을 것이다. 다시 이렇게 다양한 배경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 자유로운 학업 분위기 속에서 공부할 기회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주어진다면 그때는 수업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아리나 봉사활동 같은 교외활동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먼 타지에서 홀로 유학생생활을 하다가 락다운을 맞아 진짜 '혼자'가 된 이후에야, 학생으로서 '당연히' 누려온 친목과 격의 없는 의사소통의 기회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혜택이었음을 더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다시 문화재청으로 돌아오니 이미 경력 6년차의 사무관이 되어 있었다. 그동안 많은 후배 사무관들이 들어왔는데, 가장 최근 발령받은 사무관은 국어교육과 후배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청에 서울대 출신은 많지만, 그동안 국어교육과는 혼자뿐이었다. 원래 알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소수정예의 우리 국어교육과 동문이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하고 얼마나 힘이 되던지. 사회 각지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며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동문들이 자랑스럽고 새삼 감사하다. 모두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내시리라 믿는다. 새해에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마지막으로 최고의 추천서로 여러 대학에 합격은 물론 성공적 유학생생활로 인도하여 주신 민현식 교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先淸語文



그래, 이 맛이야!

강영임 (姜英任, '83. 신도교 교사)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다. 여름방학이 끝나가는 마지막 토요일 점심 무렵이었다. 비빔면이나 먹을까 하고 막 면을 비비는 참이었다. 누구지? 꼭 필요한 일이면 또 전화하겠지 싶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잠시 뒤 문자가 한 통 도착했다. 경인교대 과학교육과 신영준이라는 분이였다. 신 선생님이 동작고에 재직하던 시절에 가르쳤던 제자가 최근에 에세이집을 냈는데, 거기에 내 얘기가 있다고. 제자가 나를 찾고 있는 것 같으니 제자에게 내 연락처를 가르쳐 줘도 되겠느냐는 내용이었다. 제자 이름은 김혜진이고 김봄이라는 필명을 쓴다고 했다.

김혜진. 누구지? 잘 기억이 안 났다. 신 선생님이 동작고에서 가르쳤으면 내가 동작중 시절에 가르쳤던 제자인 듯했다. 동작중은 내 첫 발령학교였다. 사당 4거리에서 이수교를 지나 반포가기 전에 왼쪽 산비탈에 있는 작은 학교였다. 내가 1988년에 발령받고 이듬해인 89년에 전교조가 창립되고 전교조 가입을 이유로 1년 반 만에 해직되었던 학교였다. 아마 해직되던 해에 가르쳤던 제자인 것 같은데, 그러면 30년 전 제자가 된다. '오래전 제자가 저를 찾다니 반갑네요. 누구지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제 연락처를 가르쳐 줘도 된다'고 답장을 보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바로 전화를 하셨다. 신영준 선생님은 생물교육과 81학번이셨다. 대학 시절 사대 편집부 서클 '청량원'을 하셨다고 했다. 청량원은 81학번에 남해군수를 지내고 최근에 '바다의 노래'라는 시집을 낸 정현태 선배가 유명했고, 국어과 선배와 동기들이 많이 활동했던 서클이었다. 선생님은 청량원을 해서인지 우리 과 선배와 친구들을 훤히 알고 계셨다. 공통으로 아는 사람이 많아서 처음 통화하는데도 오래전부터 알았던 것처럼 편안한 선배님이셨다.

선생님은 혜진이에 대한 얘기도 들려주셨다. 동작고에 재직하던 시절, 혜진이와 친구 한 명이 자신을 무척 따랐다고. 쉬는 시간마다 교무실에 찾아왔다고 했다. 지금은 참 보기 드문 풍경이지만, 예전에는 이런 제자도 많았다. 졸업 후에도 선생님은 혜진이와 가끔 연락을 하며 지낸다고 했다. 혜진이는 한예종 서사창작과를 졸업하고, 민음사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했고, 모여래에 시간강사로 출강하고, KBS 라디오에 책 소개 코너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 서로 통화해 보라며 다리를 놓아 주셨다.

그러면서 혜진이의 에세이집 한 페이지를 사진 찍어 보내셨다. '한국 문단의 많은 작가들처럼 나도 황순원이라는 이름 석자에 빛을 지고 있다. 나에게 소설가 황순원을 처음 가르쳐 준 사람이 있다. 중학교 1학년 때 국어 교과를 가르쳤던 강영임 선생님.' 이렇게 시작하는 글이었다. 30년 전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낙성대 근처 옥탑방에 혜진이와 친구 다섯 명이 찾아와, 라면을 끓여 먹고 집 근처 샤모니 제과에서 빵을 사다 먹으며 수다 떨며 놀던 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혜진과 통화했다. 내 자취방에 놀러 왔던 일을 한참 얘기했다. 혜진이는 그때 내 집의 방과 부엌, 세간살이들이 다 기억난다고 했다. 그때 당시의 나는 혜진에게 중1 어린 시절에 편하게 만난 최초의 어른이었고 막내 이모 같았다고 한다. 국어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도 얘기했다. 한번은 내가 '엄마'라는 주제로 글을 써오라고 했단다. 다른 애들은 화목하고 아름다운 엄마 얘기를 썼는데, 혜진이는 엄마에 대해 진솔한 글을 썼다고.

그런데 내가 혜진이의 글이 가장 진정성 있게 쓴 글이라며 아이들 앞에 읽어 주었다고 한다. 부끄러웠지만 그걸 계기로 혜진이는 나와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한다. 먼 훗날 작가가 될 어린 제자의 글을 나는 다행스럽게도 알아보았던 것이다.

그 후 어찌어찌하다 보니 연락이 끊기고 30년 세월이 흘렀다. 혜진이는 나를 꼭 만나고 싶었다고, 그동안 한시도 나를 잊은 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나를 생각해 준 누군가가 있었다니. 나는 운명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짜릿했다. 혜진이는 에세이집을 내서 나와 연락이 닿았으니 작가가 되길 참 잘했다고 했다. 나도 내가 교사라는 사실이 새삼 너무 좋았다. 한 시간 넘게 통화하고 혜진이는 에세이집을 한 권 보내 주겠다고 했다. 그때 내가 7~8년 전에 글쓰기 모임을 하며 내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쓴 글을 문집 형식으로 낸 산문집이 있는데 나도 보내 주겠다고 했다.

며칠 후 혜진의 《좌파 고양이를 부탁해》라는 책이 도착했다. 보수적인 엄마와 진보적인 딸이 겪는 일상을 경쾌한 필치로 그렸는데,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재미있는 글이었다. 혜진이도 나의 산문집을 읽었는데, 눈물을 흘리며 두 번이나 읽었다며 그냥 물어두기 아까운 이야기이니 출판해 보는 게 어떠냐고 했다. 그 산문집을 내 주변 선생님들에게도 드렸는데 다들 재미있다고 출판해 보라고 해서 두어 군데 출판사를 알아보기도 했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출판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이것이 계기가 되어 혜진이와 '글쓰기'와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나는 아마추어로 나의 이야기를 글로 썼지만, 혜진이는 대학에서 본격적인 글쓰기 수업을 받고 오랜 습작 기간 뒤에 정식으로 등단한 작가였다. 문학에 대한 식견이 나와 비교할 수 없었다. 혜진이와 이야기하며 나도 많이 배우게 됐다. 30년 전 어린 꼬마가 30년 후에 작가가 되어 내 앞에 나타나 줄 끝에라도 생각했겠는가. 정말 '칭찬어람'은 이런 때 하는 말이다.

한 달 후 혜진이의 책은 대박이 났다. 유시민 작가가 모 인터넷 방송 추석 특집에 나와 올해 재미있게 읽은 책으로 혜진이의 책을 소개한 것이다.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예스24, 알라딘, 교보 문고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했고, 책 출간 두 달 만에 20쇄를 훌쩍 넘겼다. 어느 날은 지인 한 분이 갑자기 나에게 전화를 해서 김봄 작가의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나온다고. 제자가 나를 찾고 있는 것 같으니 빨리 연락해 보라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웃으며 이미 연락이 닿았다고,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다고 했다. 한번은 남편이 한 인문학 모임에 갔는데, 어떤 분이 그 책 얘기를 하더라고 했다. 남편이 '아~, 그거 아내의 제자가 쓴 책인데, 거기에 아내 이야기도 나온다'고 했다 한다. 베스트셀러 작가를 제자로 둔 덕에 나도 유명한 사가 됐다.

교직에서 이런 인연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요즘은 교직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점점 사무적이 되어가고, 교사들은 산더미 같은 행정 업무에 치여 하루하루 메마른 삶을 살고 있다. 이럴 때 혜진이가 내 앞에 나타난 일은 힘든 산행을 할 때 깊은 산 속에서 시원한 샘물을 만난 느낌이었다. 이런 제자를 만날 때면 잠깐이나마 교직이 보람되게 느껴진다. 그래서 누군가가 교직을 무슨 낙으로 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탤런트 김혜자 버전으로 대답할 것이다. '그래, 이 맛이야~!'

先淸語文

흑해 연안을 장악한 한류

박안토니나(박사08, 우크라이나 우신스키 국립사범대학교 교수)



코로나19 상황이 흑해의 밀려드는 파도와 같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였다는데 우크라이나 1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만 명 돌파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 가운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한국어 정규과정 개설에 대해 의논하고 싶다.' 는 오데사 소재 00중등학교 교감의 간곡한 부탁 전화이다. 알고 보니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요청 사항을 수렴하고 교감 선생님이 나선 것이다.

갑작스러운 전화와 흑해의 짙조름한 바닷바람과 한바탕 소란을 피웠던 거센 비바람 탓인지 기분이 묘하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이곳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오데사'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을 때는 한국어 교육이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다. 지금도 최상의 환경은 아니지만 6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이런 전화가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 남부인 이 지역에서 여학생 중심으로 확산되던 한류가 이제 다양한 연령층과 사회계층까지 한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니 기쁜 일이고 기대가 되는 일이다. 한류 열풍과 더불어 한국어 교수의 역할과 그 영역과 범위가 또한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의 대중문화를 연구하는 우크라이나 인문사회, 정치경제 분야의 학자들이 늘고 있는 것도 좋은 일이다.

외국어로로서의 한국어 교육으로 교육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 동유럽에서 유일하게 한국어 교육과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것, 오데사 소재 두 개의 초중고에서 한국어 과정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것, 앞으로 한국어 교원을 육성·파견해야 할 것 등등과 그 외에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은 아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할 때의 각박한 현실 속에서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 '은사님의 사랑과 격려가 없었다면, 동문 선후배 선생님들의 꾸준한 지원과 배려가 없었다면, 몸 담고 있는 학교의 총장님과 동료 교수님들의 관심과 협력이 없었다면' 중등학교에서 이런 부탁의 전화가 올 일은 없었을 것이다.

2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오데사 사범대학교 학술회의 초청 발표 요청에 모교 은사님께서 비행기를 몇 차례 갈아타는 먼 길을 마다 않고 한걸음에 달려오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소중한 순간들은 기억을 빼곡하게 채우며 마음속 깊이 각인되어 있다. 그 기억뿐만 아니라 너무 미숙했던 석사 논문을 세세히 지도해 가르쳐주시고, 박사논문을 차근차근 친절하게 지도해주신 교수님, 따뜻한 조언과 응원으로 격려해주신 선후배님들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참담 부족하고 험량한 제가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학창시절 고마운 분들에 대한 옛 추억들을 떠올려 더듬어 보다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 강의가 재개된 한국어 강의실에서 오랜만에 새내기 대학생들을 보니 너무 뿌듯했다. 한국어와 문화에 빠져 한국어교육을 전공으로 택한 이들의 끝 떨어지는 눈빛의 배움에 대한 간절함은 너무 애처로워 보였기 때문이다.

올해 드디어 교양 한국어 과정을 넘어 '외국어로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이 신설되었다. 입학생 수는 지원자 수보다 약 3배 낮다.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한국어 교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이유로 신입생 모집을 크게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어 공부에 열중할 수 있는 신입생들과 함께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교육 현장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또 한 번의 한 해가 가고 겨울을 지나 봄이 오듯이 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거나 한국 연구자 또는 전문가가 되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시간을 보내고 거리를 두며 벌써부터 그날을 기다리며 또 지금을 보며 은사님과 동문 선후배 선생님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있어 행복한 한국어 교사로 살아갈 수 있다. 先淸語文

공무원(工夫員)

두르순(박사15, 터키 에르지예스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8시 기상
8시 30분 아침 식사
8시 45분 출발
8시 55분 학교 도착
9시 공부
10시 공부
11시 공부 ...
18시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안 되겠다. 집에 가야겠다.

당연하게 생각되는 하루 일과이겠지만 이런 일과를 매일 지키는 것은 나에게 기적과 다름없었다. 2010년 서울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시작하기 전 1년간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을 다니는 동안 나는 내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자랑스러워했다. 언어교육원에서의 내용이 점점 쉬워지고, 어디서 누구 만나도 모든 사람들이 나의 한국어 실력에 놀랐다. 그래서 빨리 토익 6급을 따고, 조기진학하여 대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생각보다 시기가 빨리 돌아왔고 설레는 마음으로 국어교육학과 석사과정을 시작했다. 첫 수업에 들어가 학우들과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를 한 후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었고,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어려웠다. 정말 어려웠다. 초·중·고 그리고 대학교까지 공부를 소홀히 한 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마주한 느낌이었다. '이해가 안 된다.' '힘들다' 반복되는 그 문장들... 하지만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열심히 하자' 라기보다는 느리더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할 것을 다짐했다. 그래서 대학교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도서관에 처음으로 갔다. 거부감. 열심히 공부하는 그 수많은 학생들을 보고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다. 나도 자리에 앉아 공부를 시작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하루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다가도 다음 날은 '아니야. 안될 것 같아.',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나 자신과 싸워 가며 매일 매일을 버텼다. '박사학위... 과연 그런 날이 올까?' 한 학기의 끝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박사학위까지의 길은 너무나도 멀고, 막막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나는 공무원(工夫員)이 되었다. 공무원(公務員)처럼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하는 하루하루를 견디어 냈다.

오늘은 2021년 12월 17일이다. 터키 에르지예스 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서 Dr. ESSIZ로 본 글을 쓴다. 제목을 보고 오타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셨겠지만 오타가 아니다. 공무원으로 8년을 버틴 나는 이제 국립대학교에서 공무원이자 교수로 터키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끝이 오고, 그 끝에서 뒤돌아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날이 온다. 지금도 학교 도서관과 연구실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학우들에게 응원을 보낸다. 先淸語文

2021년 국어교육과 소식

▲尹汝卓 교수('74) 정년퇴임, 국내외 (한)국어교육 발전에 공헌 명예교수 추대, 기념도서 3권 발간 및 학과 발전기금 기탁



母科의 윤여탁 교수가 지난해 8월말 40년간의 교직 근무를 마치고 9월 1일자로 명예교수로 추대되었다. 윤 교수는 1996년 모교 부임 이래 (한)국어교육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퇴임기념도서로 단독저서 『문식성이란 무엇인가』, 제자들이 헌정한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시교육과 문화교육』, 『문학교육을 위한 현대시 작품론』을 발간하였고, 학과는 줌(zoom)으로 거행한 퇴임식에서 先淸語文 49輯을 퇴임기념호로 헌정하였다. 아울러 윤 교수는 발전기금 3천만원을 기탁해 매 학기 100만원씩 현대문학교육 전공 대학원생에게 지원하게 되었다.

▲ 2021년도 국어교육과 한글날 기념 학술행사



10월 7일(목),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마련하는 뜻깊은 학술행사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단체 활동은 생략하고, 학부 1~2학년생들이 준비한 학술발표로 진행되었다. 초청 강연으로는 장윤희('84) 동문이 <한글 제자원의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비대면 원격 화상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말을 지키는 국어교육 전공자로서의 역할을 다졌다.

▲ 모교 민병곤('86), 김호정(박96) 교수 외 공동집필, <한국어교육학개론> 2021 세종도서 '언어' 부문 학술도서로 선정



민병곤, 김호정 교수 외 모교 교수들이 제자들과 공동집필한 『한국어교육학개론』이 문화부 주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의 '세종도서' 언어부문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한국어교육학개론』은 한국어교육학이 관련 학문과 이론, 방법론을 공유하면서도 고유 정체성을 드러내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밝혀 집필했다.

▲ 서보영(' 석09), 강민규(' 석11) 동문, 제27회 海巖 學術賞 수상



故 金亨奎 교수 기금으로 제정되어 최근 3년간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나타낸 모교 출신 소장학자에게 수여되는 해암 학술상의 2021년 제27회 수상자로 강민규(강원대)·서보영(선문대) 동문이 공동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 2021학년도 8월 제76회 후기 학위수여, 신입동문 환영

2021년 제76회 후기 학위수여자로 학사 11명, 석사 13명, 박사 8명이 신입 동문회원이 되었다. 동문회 신입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경석('12), 한원희('12), 기래훈('14), 신성민('15), 최형우('16), 박지경('16), 한다솔('16), 고경연('16), 이수빈('17), 전홍주('17), 이의정('17)

(이상 2021년 8월 학사졸업자 총 11명)

그레이스, 손수수, 이수연, 전희정, 박지수, 송미지, 김용걸, 송창경, 정혜운, 김유나, 나상수, 이해린, 조방방 (이상 2021년 8월 석사졸업자 총 13명)

김효정,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교육 연구:<심천정>이본을 중심으로」
리 위, 「조선족 학습자의 경험을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이해 교육 연구」
김정은, 「양태 표현의 대화성에 관한 문법교육 내용 연구」
김민재, 「시 인식 중심의 심미적 문식성 교육 연구」
판다쥬, 「미안미안 한국어학습자를 위한 인지언어학적 관점의 격조사교육연구」

정하라, 「한국어 관련 전공 베트남 대학원생의 학습과정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베트남 유학생의 학습생애사를 중심으로-」
한설옥, 「번역을 활용한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한국 현대시 교육 연구」
김 영, 「구상적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한국 고전시가 감상교육 연구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상 2021년 8월 박사졸업자 8명)

▲ 2021년 2학기 동문 장학금 수여

2021년 2학기 국어교육과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올해도 코로나19 사태로 별도의 장학금 수여식은 거행하지 않았다.

- 난애(蘭臺) 장학금** : 1989년 및 2009. 9. 7. '4천만원' 출연
母科에 재직하던 故 이은백 교수가 1988년 퇴임 후 및 2010년 별세 전 기탁한 장학금. 매 학기 대학원생 2명에게 15만원씩 지원함.
- 연지(蓮池) 장학금** : 2009. 12. 29. '2천만원' 출연
故 정영수 동문('54)이 일찍 작고해 유족이 기탁한 장학금. 주로 여학생에게 수여함. 매 학기 대학원생 1명에게 15만원을 지원함.
- 국어교육과 동문회 장학금** : 2009. 12. 28. '1억원' 출연
1980년대 초 1차, 2009년 2차로 동문 모금에 의한 장학금. 성적 우수 및 학과 기여도 높은 학부생 1명에게 매년 1회 150만원을 지원함.
- 국어교육과 60돌 동문 장학금** : 2007. 12. 10. '1억원' 출연
2007년 母科 60돌 기념으로 동문회가 모은 장학금. 학과 기여도가 높은 학부생에게 매년 1회 150만원을 지원함.
- 다다 장학금** : 2004. 1. 13. '1억원' 출연
이창득 동문('71, 다다 출판 대표)이 기탁한 장학금. 교직을 희망하는 학부생 1명에게 매년 1회 150만원을 지원함.
- 호석(胡石) 장학금** : 2005. 7. 15, 2015. 12. 29. '5천만원' 출연
母科에 재직하던 故 김광해 교수가 기탁한 장학금.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부생 1명에게 매년 1회 90만원을 지원함.
- 우공(于空) 장학금** : 2006.1.17. ~ 2012. 12. 17. '2930만원' 출연
母科 우현용 명예교수가 기탁한 장학금. 학문적 성취가 기대되는 학부생 1명에게 매년 1회 45만원을 지원함.
- 운정(耘亭) 장학금** : 2014. 5. 13. '3천만원' 출연
母科에 재직하던 故 이상의 교수가 기탁한 장학금. 고전문학 전공 학부생이나 대학원생 1명에게 매년 1회 45만원을 지원함.
- 운당(雲堂) 장학금** : 2015. 2. 4. '1억원' 출연
母科 교수로 재직하신 故 구인환 교수께서 기탁한 장학금. 학문적 성취가 기대되는 대학원생 1명에게 매 학기 75만원을 지원함.
- 이영락 장학금** : 2014. 10. 29. 1천만원 출연
이영락 동문('06)이 교직 희망 학부생에게 매학기 200만원 지원함(2016년 종료)
- 김병욱 장학금** : 2017. 11. 1. '1천만원' 출연
김병욱 동문('66, 인천대 명예교수)이 기탁한 장학금. 학문적 성취가 기대되는 대학원생 1명에게 매년 1회 200만원을 지원함(2022년 종료).
- 우남(雲南) 한글 장학금** : 2020. 6. 17. '3천만원' 출연
母科 민현식 명예교수가 기탁한 장학금. 우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건국정신과 국민계몽의 한글정신을 기려 문법교육 전공 대학원생 1명에게 매 학기 100만원 지원함.
- 윤여탁 교수 장학금** : 2021.8.31. '3천만원' 출연
母科 윤여탁 명예교수가 기탁한 장학금. 학문적 성취가 기대되는 현대문학교육 전공 대학원생 1명에게 매 학기 100만원을 지원함.
- 先淸語文 장학금** : 2021년 1학기부터 동문회에서 출연
회원들이 내는 동문회비 3만원의 70% 목표로 장학금으로 배정하여 조성하는 장학금.
- 同門 特誌 릴레이 장학금** : 2021년도 1학기부터 동문 릴레이로 출연
동문들이 목돈을 기부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1회 10, 30, 50, 100만원 등 장학금을 보내 주시면 그분의 특지를 받들어 지원하는 1회 기부성 장학금.
이상의 장학금을 연간 총 17명(학부생 5명, 대학원생 12명)에게 지급하는데 저금리로 지급액이 크게 줄어 장학금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대학본부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으로 장학금을 절반으로 줄여, 고학중인 후배들 특히 고물가에 시달리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동문 여러분의 사랑의 장학 후원이 절실합니다. (후원안내 11쪽 하단 참고)

동문사진

내가 기억하는 국어교육과 - 내 인생의 보물창고(석16 윤현정)



관정 도서관 가는 길



눈 내린 날 12동과 눈 덮인 사범대학 내정(內庭)

공지사항

2021년도 동문회 회계 결산 보고(2021. 1. 1. ~ 12. 31.)

(1) 동문회 경상비

수입 항목		지출 항목	
이월금	2,257,878	조문비(조기 발송)	958,500
회비(1월~12월)	3,220,000	연락 통신비(오즈 메일레)	438,800
찬조금	596,000	경조비(취임 축하 선물)	442,937
결산이자	1,937	先淸語文 장학금	3,001,500
동문회보 67호 제작지원비	2,112,000	신춘하례식 진행비	196,000
		동문회보 제작 및 발송비	2,412,000
		사범대 동창회 찬조금	300,500
		결산소득세	348
수입 합계	8,187,815	지출 합계	7,750,585

2022.01.01. 현재 잔액: 437,230원

(2) 동문회 발전기금

수입 항목		지출 항목	
2021-1 특지 장학금 ('59 이경남)	3,000,000	2021-1 특지 장학금 (100만원씩 3명 지급)	3,000,000
2021-1 특지 장학금 (박05 오현아)	1,000,000	2021-1 특지 장학금 (100만원 1명 지급)	1,000,000
2021-2 특지 장학금 ('84 익명)	500,000	이월금 (22-1학기 지급 예정)	1,500,000
2021-2 특지 장학금 (박05 오현아·심혜령)	1,000,000		
수입 합계	5,500,000	지출 합계	5,500,000

2022.01.01. 현재 이월금 잔액: 1,500,000원
(2022년도 1학기 동문 특지 릴레이 장학금으로 지급 예정)

2022년도 동문회 예산안(2022. 1. 1. ~ 12. 31.)

(1) 동문회 경상비				(2) 동문회 발전기금			
수입 예산		지출 예산		수입 예산		지출 예산	
1. 이월금	381,267	1. 先淸語文 장학금 (동문회비 70%) 장학금	3,500,000	1. 이월금	1,500,000	22-1. 장학지원	1,500,000
2. 동문회비	5,000,000	2. 신년하례식 진행비	1,500,000	2. 동문 특지 릴레이 장학금(3인 목표)	3,000,000	22-2. 장학지원	3,000,000
3. 신년하례식 참가비 (5만원*40명)	2,000,000	3. 연락통신비(오즈 메일레)	1,000,000				
4. 나들이 참가비 (5만원*30명)	1,500,000	4. 경조비(플렉하이웨이)	700,000				
5. 기타 찬조금	3,018,733	5. 가을 나들이	1,500,000				
		6. 동문회보 2회 발간 및 발송비	3,000,000				
		7. 예비비	700,000				
예산 수입(계)	11,900,000	예산 지출(계)	11,900,000	예산 수입(계)	4,500,000	예산 지출(계)	4,500,000

공 지 사 항

▲ 2021년 동문회비 납부자 및 찬조자 명단(2021年 1月 - 2021年 12月)

※ 동문회비, 찬조금을 납부해 주신 동문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동문들의 회비와 후원을 기다립니다.

각 기별로 입학 또는 졸업 20, 30, 40, 50주년을 맞는 해에 동문회 장학 후원으로 학과 사랑을 이어갑니다.

[회장단]

민현식('73, 회장)
이윤희('83, 부회장)

[이사] 이은숙('79, 여성협력부회장)
이재엽('79, 장학부회장) 이두희('80, 조직부회장)
이수성('80, 총무부회장) 김호정(박96, 여성협력부회장)
정민주(석99, 여성협력이사) 강남욱('96, 일반이사)
조진수('00, 재정이사) 오현아(박05, 일반이사)

봄學 중인 학생들, 高物價에 시달리는 가난한 외
국인 유학생들을 위하여 국어과 동문 여러분의 따
스한 장학 후원을 기다립니다

[고문단]

이석주('60)

[일반회원] 서혁('82) 이재국('69) 박창래('86)
이진희('84)(5년치) 이찬호('80)

1. <先淸語文 장학금> 2021년 신설

동문회비가 동문회 행사비보다 장학 지원에 더 많
이 쓰이도록 동문들이 납부하는 동문회비의 70%를
목표로 장학금으로 우선 배정하여 조성하는 장학
금입니다.

[자문위원]

이주행('63)
서덕현('88)

[찬조] 박인기('68, 자문위원) 10만원
민현식('73, 회장) 196,000원(신년하례회비)
김호정(박96, 여성협력부회장) 30만원

2. <同門 特志 릴레이 장학금> 2021년 신설

동문들이 큰 목돈을 기부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1회 10, 30, 50, 100만원 등 자유롭게 장학기금을
언제라도 평생 한 번 보내 주시면 그분의 이름으
로 또는 익명으로 지원하는 1회성 기부 장학금입
니다. 동문들의 후배 사랑의 特志 릴레이가 이어
지기를 기다립니다.

[감사]

김봉순('86)

2021.1.1.-2021.12.31. 현재
동문회비·찬조금 총 3,816,000

[기별 분담금]

96학번(동기회장: 강남욱)

[同門 特志 릴레이 장학금] 총 550만원
이경남('59) 300만원 익명 50만원
오현아(박사05) 100만원
오현아(")·심혜령 100만원

[감사 의견] 동문회 재정은 '장학후원' 과 '친목활동' 의 두 축으로 운용됩니다. 친목활동은 참가자 부담으로 이루어지므로 동문회비는 장학후원에 최대로 쓰여야 하고, 동문회지 발간·통신비·경조비에는 최소로 쓰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동문회비가 어느 정도 모여야 합니다. 이런 기조에 따라 2021년도 동문회 재정은 알뜰하게 운영되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2년 전 1천만원 적자상태를 방효정('55)·이혜성('58)·최방지('59) 동문의 장학금 잔액으로 해결하여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장학 후원의 뜻을 잇도록 <선청어문 장학금>과 <동문 특지 릴레이 장학금>이 제정되어서 잘 정착되기를 기원합니다. 동문들의 회비를 받아 기본경비를 30% 미만으로 최소화하고, 70% 이상은 <선청어문 장학금>으로 합은 바람직합니다. 1회 기부성 장학금인 <동문 특지 릴레이 장학금>의 릴레이 기부가 가난한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제공되어 모교 국어과가 한국어 세계화를 선도하도록 동문들의 사랑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동문회지 종이 발간이 회비 부족으로 21년 7월호(68호)를 pdf로 발간함이 탄소절감시대에 대세이지만 원로동문들이 pdf도 못 받아볼 경우에 제한적 인쇄발송 방안도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들에게도 인쇄본이 배포되므로 학생용 인쇄본 발간 시 원로동문용도 신청을 받아 같이 발간, 발송하는 방안을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문회는 매년 경조비(주로 弔旗 1회 발송 25,500원, 연 30회 약 70-80만원), 연 2회 동문회지 편집, 발간[인쇄본 1회, 영인본(pdf) 1회], 발송비(총 300만원), 문자 발송 통신비(100만원)가 최소 활동만으로도 약 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수입은 태부족입니다. 동문 각 기별로 입학 또는 졸업 20, 30, 40, 50주년 기념으로 동문회 발전 및 장학금 기탁이 매년 이어지지만 해도 어려움은 크게 해소되리라 봅니다.

동문회비 및 장학기금 납부 안내

동문회비는 1년에 1회, 아래 '회비' 계좌로 입금하시면 <선청어문 장학금>에 70% 이상, 동문회 운영에 30% 미만으로 운영합니다. <동문특지 릴레이장학금>도 같은 계좌로 보내시고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후원을 기다립니다.

동 문 회 비: 카카오페이 3333-043-108244 [예금주: 나상수]
동문특지 장학금: 카카오페이 3333-043-108244 [예금주: 나상수]

회비 내역

會 長 100만원
副 會 長 15만원
顧 問 10만원
諮 問 委 員 10만원
分 科 理 事 10만원
一 般 理 事 10만원
期 別 理 事 10만원
期 別 分 擔 金 30만원
一 般 會 員 3만원

동문회칙 변경 안내

기존: 제6조(任期)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重任할 수 있다. 단 會長은 重任할 수 없다.

변경: 임원의 임기는 1년이고, 重任할 수 있다. 단 會長은 重任할 수 없다.

이 회칙은 2021. 1. 10부터 시행한다.

동문회보 안내

- 2022년 8월 발행 예정인 동문회지 제70호에 실릴 각종 公知 및 廣告를 받습니다.
- 동문회 이메일(ed705@snu.ac.kr)이나, 전화(02-880-7657)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金鍾澈 교수 퇴임기념호 “先淸語文” 第50輯 原稿 募集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國語教育科에서 매년 발간하는 학술지 『先淸語文』 50輯(22년 8월)이 김종철 교수 퇴임기념호로 꾸미게 되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 분량: 200자 원고지 80-100매 내외(A4로 20매 내외)
- 원고 마감: 2022년 6월 15일
- 보내실 곳: ✉ ed705@snu.ac.kr

국어교육과 동문회 임원

회 장
이삼형(' 73)

공동 부회장	감 사
윤여탁(' 74) 김종철(' 75) 김종신(' 77) 이은숙(' 78) 이수성(' 80) 설경수(' 81) 서 혁(' 82) 전영식(' 84)	이도영(' 82) 이은희(' 84)

총무분과
 조직분과
 섭외분과
 재정분과
 장학분과
 출판분과
 여성협력분과

분과 이사	총무분과	조직분과	섭외분과	재정분과	장학분과	출판분과	여성협력분과
	빈중호(' 83) 엽은열(' 87) 김정우(' 88) 김유미(' 89) 박종훈(' 90)	김창원(' 80) 이두희(' 84) 민병곤(' 86) 김혜정(' 88) 송현정(' 87)	조용기(' 80) 장윤희(' 84) 정혜승(' 85) 류수열(' 87) 김근수(' 88)	이수성(' 80) 성기선(' 82) 임경순(' 83) 조현일(' 84) 김영선(' 87)	김주환(' 82) 김유중(' 83) 민현주(' 85) 오찬세(' 88) 고정희(' 90)	구자관(' 83) 최지현(' 84) 고하영(' 88) 신명선(' 96) 유영희(' 99)	최미숙(' 84) 노미숙(' 87) 주세형(' 92) 김호정(' 96) 구영산(' 02)

기별 이사(동기 회장단: 남녀 대표 1인씩)

3회(' 46) 박영자	20회(' 63) 박강문	40회(' 83) 빈중호	61회(' 04) 박해진
4회(' 47) 우인섭, 김남조	21회(' 64) 박경현	41회(' 84) 유철상	62회(' 05) 박주형
5회(' 48) 이병무, 김상준	22회(' 65) 김홍식	42회(' 85) 서창현	63회(' 06) 박종관
6회(' 49) 이명권	23회(' 66) 신상철	43회(' 86) 황석연	64회(' 07) 최동석, 김상준
7회(' 50) 김홍식	24회(' 67) 형남규	44회(' 87) 류수열	65회(' 08) 전기성
8회(' 51) 김은숙	25회(' 68) 박윤주	45회(' 88) 김정우	66회(' 09) 김민재
9회(' 52) 박종대, 원훈의	26회(' 69) 정명수	46회(' 89) 고광수	67회(' 10) 호창수
10회(' 53) 전영우	27회(' 70) 이성구	47회(' 90) 임종수	68회(' 11) 김범진
11회(' 54) 최강문	28회(' 71) 허인일	48회(' 91) 박건호	69회(' 12) 박유현
12회(' 55) 한정식	29회(' 72) 김석희	49회(' 92) 안 혁	70회(' 13) 나상수, 박찬미
13회(' 56) 장영익, 조운숙	30회(' 73) 장광섭, 김순희	50회(' 93) 김호래	71회(' 14) 배승희
14회(' 57) 신철수	31회(' 74) 윤기영	51회(' 94) 주재우	72회(' 14) 김진아
15회(' 58) 박찬도, 전경옥	32회(' 75) 서인석	52회(' 95) 남가영	73회(' 15) 송미지
16회(' 59) 심영자	33회(' 76) 오학균	53회(' 96) 강남욱	74회(' 15) 박한울
17회(' 60) 한상무	34회(' 77) 김종신	54회(' 97) 권민호	75회(' 16) 이정은
18회(' 61) 신난수	35회(' 78) 박기호	55회(' 98) 유성주	
	36회(' 79) 경종록	56회(' 99) 이관희	
	37회(' 80) 조용기	57회(' 00) 류신형	
	38회(' 81) 김춘성	58회(' 01) 허재영	
	39회(' 82) 박종호	59회(' 02) 이성준	
		60회(' 03) 우신영	

각 기별로 입학 또는 졸업 20·30·40·50주년을 맞는 해에 동문회 장학 후원으로 학과사랑을 이어갑니다

고 문 단
대표 고문 홍래식(' 67) 우한용(' 68) 이강호(' 73) 민현식(' 73) 이준순(' 76)
자문위원단
대표자문위원 (남): 박운우(' 76) (여): 윤희원(' 75)
간 사
조 교: 나상수(' 13)

국어교육과 동문회 임원

고문(54)

박영자('46): WCPERR 회장, "World Literature"지 발행인, 편집인

김남조('47): 숙명여대 명예교수

이병무('48): 前 도봉중 교장

김은전('50): 서울대 명예교수

전영우('53): 수원대 명예교수

박갑수('54): 서울대 명예교수

유성규('55): 시조생활사 대표

장영익('56): 前 등원중 교장

신철수('57): 前 광남고

주돈식('57): 세종대 석좌교수

박찬도('58): 前 송정중 교장

이현복('58): 경인교대 명예교수

이혜성('58):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총장

노재봉('59): 前 자양고 교장

최현섭('59): 경인교대 명예교수

이석주('60): 한성대 명예교수

한연수('60): 前 태능중 교장

박삼서('69): 前 영등포여고 교장

우인섭('47): 서경대 명예교수

이명권('49): 前 인일여고 교장

김홍식('50): 제주대 명예교수

정동화('53): 前 인천교대 총장

최강문('54): 前 福岡韓國綜合教育院長

한정식('55): 중앙대 명예교수

조윤숙('56): 前 정의여중

유민영('57): 단국대 명예교수

황재균('57): 가천대 명예교수

성기철('58):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전경옥('58): 前 천일중학교 교장

정귀생('58): 前 전농여중 교장

김종민('59): 前 성원중 교장

김광휘('60): 前 MBC 방송작가

최래옥('60): 한양대 명예교수

홍래식('67): 유라시아문화포럼 이사장

이창득('71): 前 도서출판 다다 대표

김상준('48): 前 서울시교육감

한원영('49): 前 주성전문대학장

김은숙('51): 前 선일여고

정우상('53): 서울교대 명예교수

경동호('55): 前 서울사대부고 교감

박찬구('56): 前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김성식('57): 前 서부교육청 교육장

이대규('57): 부산대 명예교수

김성렬('58): 아주대 명예교수

윤미길('58): 원광대 명예교수

전영찬('58): 前 낙생고등학교 교장

권정순('59): 前 승인여중 교장

최방지('59): 前 한국어문학회

김봉균('60): 가톨릭대 명예교수

한상무('60): 강원대 명예교수

우한용('68): 서울대 명예교수

이강호('73): 前 세현고교장, 도산서원 선바문화수련원장

자문위원(97)

김대행('61)

김수형('61)

신난수('61)

유학영('61)

탁은수('61)

김경수('63)

엄동일('63)

이석규('63)

이주행('63)

오두범('64)

박경현('64)

백종의('64)

정경섭('64)

최전승('64)

강사민('65)

김일병('65)

김진영('65)

김희자('65)

박기석('65)

한래화('65)

김희락('66)

노명완('66)

박영목('66)

신상철('66)

왕문용('66)

이문규('66)

천한신('66)

강봉근('67)

김준태('67)

양창순('67)

최재덕('67)

한철우('67)

허 규('67)

형남규('67)

박인기('68)

김한영('68)

박종휘('68)

손행규('68)

송진섭('68)

이영복('68)

이호균('68)

김현중('69)

정덕자('69)

서덕현('69)

이경복('69)

임학수('69)

정명수('69)

정병헌('69)

김래식('70)

박호영('70)

송재욱('70)

이성구('70)

이완섭('70)

이진걸('70)

이홍자('70)

장경희('70)

홍승직('70)

기세관('71)

류상일('71)

윤동원('71)

이시우('71)

이원희('71)

하용이('71)

한점돌('71)

황재순('71)

김석희('72)

박영애('72)

심재홍('72)

최병우('72)

최옥수('72)

한만성('72)

이경우('73)

장광섭('73)

이승원('73)

정학섭('73)

이근표('74)

신원재('74)

이상요('74)

안재훈('74)

허익배('74)

구자승('75)

김종철('75)

박정규('75)

오건오('75)

윤희원('75)

공인표('76)

극중영('76)

맹용재('76)

박 택('76)

심규선('76)

오학균('76)

이희세('76)

이종문('76)

최두석('76)

최원호('76)

이윅희('83)